

폭설에 한파 ‘꽂꽂’... 내일까지 15cm 눈 더 온다

도로 곳곳 눈길 미끄러짐 사고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객 ↑
하늘길·뱃길·탐방로 출입 통제
시설물 피해 등 각별한 주의를

최강 한파 속에 하루 사이 2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광주·전남 도로 곳곳에서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랐고, 하늘길과 뱃길이 일부 통제됐다. 광주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대거 몰려 혼잡이 빚어졌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 서북권에 22일까지 5~1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적설량은 영암 시종 22.8cm, 함평 19.9cm, 광주 광산 16.9cm, 장성 상무대 14.9cm, 나주 13.8cm 등이다.

한파와 폭설이 겹치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속출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눈길 미끄러짐 추정 교통사고는 광주 15건, 전남 6건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7시 7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앞선 차량을 들이받아 50대 남성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다. 해남군 현산면과 장흥군 회진면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사고가 잇따라 운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1시 26분께 나주시 문평면 무안~광주고속도로(무안방면)에서도 차량 7중 추돌사고로 4명이 다쳤다. 밤사이 내린 많은 눈으로 일부 도로와 뱃길과 하늘길 역시 일부 통제됐다.

광주는 무등로~송강로(시계탐삼거리~

청풍습터~금곡마을 입구) 일대 8km 도로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시내버스(총 101개 노선)도 18개 노선이 단축 또는 우회 운행하고 있다.

광주·여수공항에서 제주와 서울로 향하는 여객기의 결항 또는 이륙 지연이 이어졌다. 완도·목포·여수·고흥에서 오가는 여객선 53개 항로·83척 중 30개 항로·50척이 운항을 멈췄다.

무등산·월출산·내장산국립공원 내 탐방로 출입도 통제 중이다.

문흥고가와 백운광장 교차로 등 광주 도심 주요 도로에서는 출퇴근길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등 거북이 주행을 하며 일시 교통 혼잡도 빚어졌다.

강추위와 폭설 탓에 대중교통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 출근시간에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미처 태우지 못하고 출발하는 만원버스도 눈에 띄었다. 버스를 타지 못한 시민들은 “회사에 지각하게 됐다”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광주 지하철 이용 승객도 큰 폭으로 늘었다.

미끄러운 눈길에 넘어지는 낙상 사고도 잇따랐다. 소방 당국에 접수된 낙상 사고는 광주 12건, 전남 1건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상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도 광주와 전남에서 1건씩 접수됐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22일에도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기상청은 22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5~15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으며 눈은 23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아침기온은 영하 12~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2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전날 낮 기온보다 1도가량 낮은 기온이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춥고 긴 시간 무거운 눈에 의해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눈이 쌓이고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갑속 운행 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 북구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21일 북구 관내 결빙 구간에서 염화칼슘 살포기와 송풍기 등으로 밤 사이 내린 눈을 치우고 있다. 나건호 기자

‘영호남 숙원’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 ‘청신호’

국토위 소위·전체회의 통과 예타 면제 유지·복선화 삭제

영호남 숙원사업인 광주와 대구 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시는 ‘달빛철도특별법’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달빛철도특별법’은 현행 사상 최대의 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정치권이 대거 나서면서 특별법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5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

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광주시와 대구시는 국회를 방문해 반대위원을 설득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구하는 등 달빛철도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예타면제 조항 유지, 달빛철도로 명칭 수정, 일반철도 채택, 복선화 삭제 등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위안 원안대로 통과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의정을 남겨두고 있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달빛철도특

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라며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달빛철도는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만큼 연내 이 법안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남은 일정까지 법사위 위원 개별 방문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사람들 (582/1000)

정 찬 호
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장

▶관련기사 16면

성탄절... 25일자 신문 쉽니다

GOLDEN HILL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문무역상사 지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주)골든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